

96세 나이에 하루 8시간씩 참선

7일 원당암서 31차례 안거 결제한 김 광 명 화 보살

지난 7일은 음력 10월 보름 동안거(冬安居) 결제일. 안거는 운수행각(雲水行脚)을 하던 스님들이 일정한 처소에 모여 한철 동맹정진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지만 최근들어 이 안거에 동참하는 재가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광명화 보살(光明花·본명 김봉수·96세). 스님들 못지않게 15년을 빠짐없이 동, 하안거를 성만해 온 이 노보살은 안거 경력만으로도 해인사 원당암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부터 5시까지 참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선은 오전 8시~10시, 낮 2시~4시, 저녁 7시~9시로 하루에 8시간씩 하게 됩니다.

스님들과 같이 용맹정진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한 스님들과 똑같이 해보려고 흥내를 내 보는 것이죠.(웃음).

—한글지 않으십니까.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웬지 모르



수요 인터뷰

생보살(生普薩)이라 불리우고 있을 정도다. 한 세기의 삶을 목전에 둔 광명화 보살은 결제일을 이틀 앞둔 지난 5일 사뭇 설레이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마음이 건강할수록 장수

—96세라는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해 보이십니다.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하루 삼시 세끼 끼니 잘 챙겨먹고 마음 편안히 지내면 그것이 잘사는 것이지 유행나게 건강 유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늙어지면 육체가 쇠락해지는 건 자연의 섭리였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부산서 왔다는 옆 자리의 한 보살이 "젊은 사람들이 가끔씩 피를 부리다가도 광명화 보살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한다"며 김보살을 만나기 위해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온다고 귀띔한다)

—일반 재가불자의 경우 안거에 참여 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요즘 사람들이야 워낙 바쁘게 살아가니까 어디 안거에 참여나 할수 있나. 그래서 그런지 대처에 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안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것이 뭣꼬' 화두 매달려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는 것이 더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공자가 말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를 불교적 용어로 바꾸면 보살심(普濟心)이 되지 않을까요. 모르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가짐, 나와 남 가릴 것 없이 한데 보듬을 수 있는 큰 마음을 키워 나간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마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사람 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 또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돌, 흙에까지도 보살심이 미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말씀을 듣고보니 결제에 임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마음'을 짓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안거에 들면 어떻게 정진하시는지요.
▲안거기간이라 해서 뭐 그리 특별한 것은 없지만 마음가짐만은 달라야겠지요.

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집적대통령들의 구속수감에 대해서 불자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안거기간이 있음으로 많은 젊은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자신을 돌아 보는 계기를 갖게 되니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항상 화두를 놓지않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해요. 오래 살아 부끄러워서 그런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것 이게 뭣꼬'라는 물음에 매달려다 보니 나이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해인사 방장인신 해암스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당지심사불 유애법위사(當知心是佛 惟愛法爲師, 지금 마음을 알면 이것이 부처되는 길이니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스승으로 삼으라)'라는 건데요. 화두와 더불어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여 봅니다.

—인곡, 해암, 원각스님 등 큰 스님들을 상대에 걸쳐 시봉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이로서 중핵이라 할지 않으셨을 텐데요.
인곡·해암·원각스님 시봉

▲해암스님의 은사인인 인곡스님을 마산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모시고 대장경 정대불사를 하게 됐는데, 그길로 해인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덕 높은 스님을 상대에 걸쳐 모시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덕인지 모르겠어요. 스님께서 '보살님은 왜 출가하지 않았느냐고 하시길래 '내가 출가하면 스님 시봉은 누가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스님 시봉덕분이었는지 손녀중 한 아이는 지

금 스님이 되었어요.

장성한 자식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나서지만 나는 여기서 스님들을 모시고 사니 극락세계와 다름 없습니다.

얼마전 아흔여섯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김보살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냐는 우매한 질문에 현생에서만 인연이 끝나게 아니며 내세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투게 될지 그 인연공덕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답한다. '광명화 보살은 공부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스님들이 가끔 놀래기도 한다는 김보살은 또 '공부도 삼도 모두 무상(無常)함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당암 헌전, 두령 남짓한 광명화 보살이 불법을 익히는 백운실(白雲室) 바깥으로 동굴함을 더해가는 열사(열사(열사)이 활달하는 눈발 위로 걸려 있었다.

가야산=박병근 기자

나의 수행일기

박순호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나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소년 시절부터 불교를 믿어 왔지만, 절에서 禪을 하라고 하여 선방에 앉아보면 어찌나 답답하고 별 재미가 없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피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5년전 어느 날 대학법당에서 禪을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그 답답하고 재미없는 선을 무엇하러 시작하는가?' 하는 생각이 속으로 걱정스럽게 기까지 하였다.

처음에 앉아보니 얼굴에 개미가 씹씹 기어가는 것 같아서 손이 자꾸 올라가고 졸음도 오며 머리가 맑아지지는 커녕 온갖 상념이 떠올랐다.

워낙 운동신경이 둔한 터이라 요통이 오는 것 같기도 해서 참선의 재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견뎌야 할까' 하는 걱정이 더 많았다.

줄어들고 기억력이 증진되었다.

셋째,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나의 생활태도를 보고 집사람도 이런 점을 긍정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니 이제는 대학 다닐때 좋아하던 과목의 강의시간 만큼이나 수요일 아침 선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군산에서 출발하여 아침 8시까지 오려면 광장의 주차난 때문에 앞차를 밀어야하고, 운전할 못하는 나는 안사람의 얼굴을 살펴야 할 때도 있고, 신호등에 마음을 졸이면서 가야 하지만 이제는 선방에 앉는 시간

참선공덕 체험하니 '매사가 여유'

변화된 생활태도에 아내도 '참나 찾기' 동참

그러던 어느날 일행 중의 최고수님께서 禪 시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무의지경에 들어 평온한 자세로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부러웠다. 나도 앞으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앉아보면 저와 같은 결과가 오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새롭게 결심을 하였다.

해가 바뀌어 금년 새 학기가 시작되자 이소성대(以小成大)라는 말처럼 성격도 점점 늙어서 오즈를 수요일 아침 선 시간에는 6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오랫동안 참선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뜻 깊은 자세를 볼 때마다 '나도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앉곤 하였다.

禪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얼굴에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도 없어지고 선하는 자세가 바로 잡혀가며 상념도 그전에 비해서 덜 떠오른다.

또한 참선의 공덕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생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왔다.

첫째로,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챙기는 여유가 생겼다.

둘째로, 마음이 차분해지니 화내는 일이

이 갈수록 새롭고 재미가 쏠리고 즐거움도 기다려진다.

禪을 하고나서 느끼는 그 기분은 마치 소년 시절 두메산골의 고향에서 나무뭉치를 짊어지고 산 정상에 올라 탁 부러놓고 술바람을 쏘이던 그 상쾌한 기분을 비할까?

아무튼 선의 체험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잔 재미가 난다. 이렇게 재미나는 선 체험의 기회를 주신 대학교당의 교감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무님들께 감사의 드림

면서 이와 같은 재미를 혼자만 맛볼 수 없어서 시간이 나는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권하고 있다. 교당에서 만나 권하기도 하고 전화를 이용하기도 한다.

본래면목이라는 화두로 '참나'를 찾아가며 매 주 선방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저 심산유곡에 감추어진 약초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탁박한 사회에서 이 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구실을 하실 분들과 함께 나는 감히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저 심산유곡의 무공해 공기와 같은 참선의 담백한 맛을 체험하시라고 널리 권장하고 싶다.

기술과 유통과정이 가격 격차를 해결 했습니다

'95최신형 방열판 15개를 확인후 구입하십시오

BECKER·CALORIC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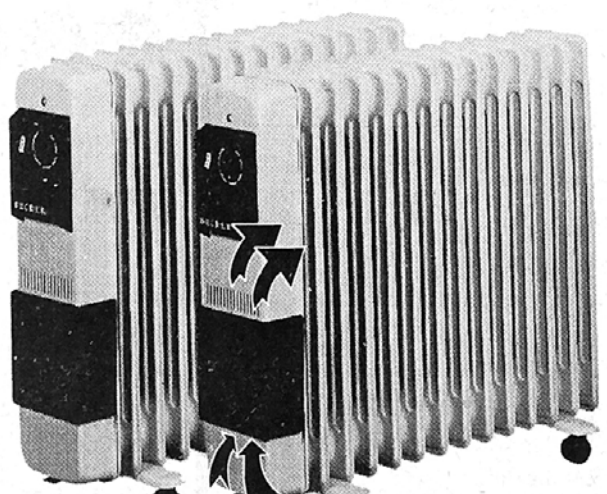
- 환경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온풍권 기능의 쾌속난방
-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과열방지 기능
- 자동 통파방지 기능
- 고품격의 디자인 및 안전감각
- 이더리 자유로운 난방기구

주요 기능

- 자동온도 감지센서 기능
- 통파 및 과열방지 기능
- 열효율을 높여주는 공기 유통배출 일렉트릭 팬

제품 사양

내용 용량	BECKER 라디에이터
보일러용량	형 7-743
전 기 전 령	220V/60Hz
규 격	50/52cm x 21/6cm
방 열 관 수	15개
소비 전력	1인 1,000W 2인 2,000W 1인·2인 : 3,000W 전·온풍팬 2,800W



회전식 세라믹 팬히터

Pierre Cardin

회전식 세라믹 팬 히터 장점

- 동종 최대의 강력한 파워
- 회전식 기능의 송풍난방
- 파에르 가르망의 디자인과 기술에 의한 고품격의 감각
-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분위

세라믹 히팅 방식이란?

전기에 의해 직접 가열된 특수가공 세라믹 판넬 사이로 공기를 방출시키는 원리로 산소기 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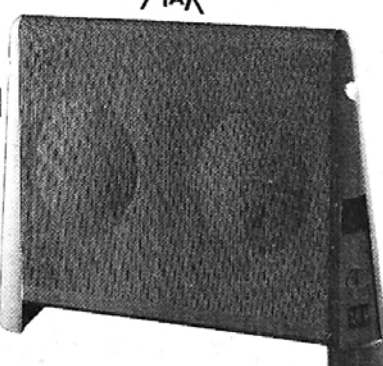


분사식 송풍 난방

MAX

환경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연소시 일반난방기의 문제점 완전 해결
- 분사식 기능의 송풍난방으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 자동온도장치 및 과열 방지 기능



수입원→창고→소비자 ₩396,000 → ₩248,000

특별 보급가 ₩160,000 → ₩138,000

특별 보급가 ₩380,000 → ₩278,000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정기분할

모 남미물류(주) ■광역시 부 산: 646-7905~6 ■경기도 전 주: 43-0880 ■경상도 거 제, 총무: 홍성·대전·예산 (0451)34-0121~2 ■전라도 전 주: 85-5130 ■여 전: 762-7944

대: (02)516-0114 ■광주: 361-1349 ■경기도 평택, 오산, 안성: (0333)655-0966 ■충청도 포 향: 47-8794 ■충청도 이 리: 452-0386 ■광 동: 78-6428

대 구: (052)566-6373 ■대전: 627-9484 ■수원: (0331)32-6344 ■강원도 원 주: ■충청도 울 산: ■충청도 마 산: 56-7685 ■전안·온양 (0417)582-4475